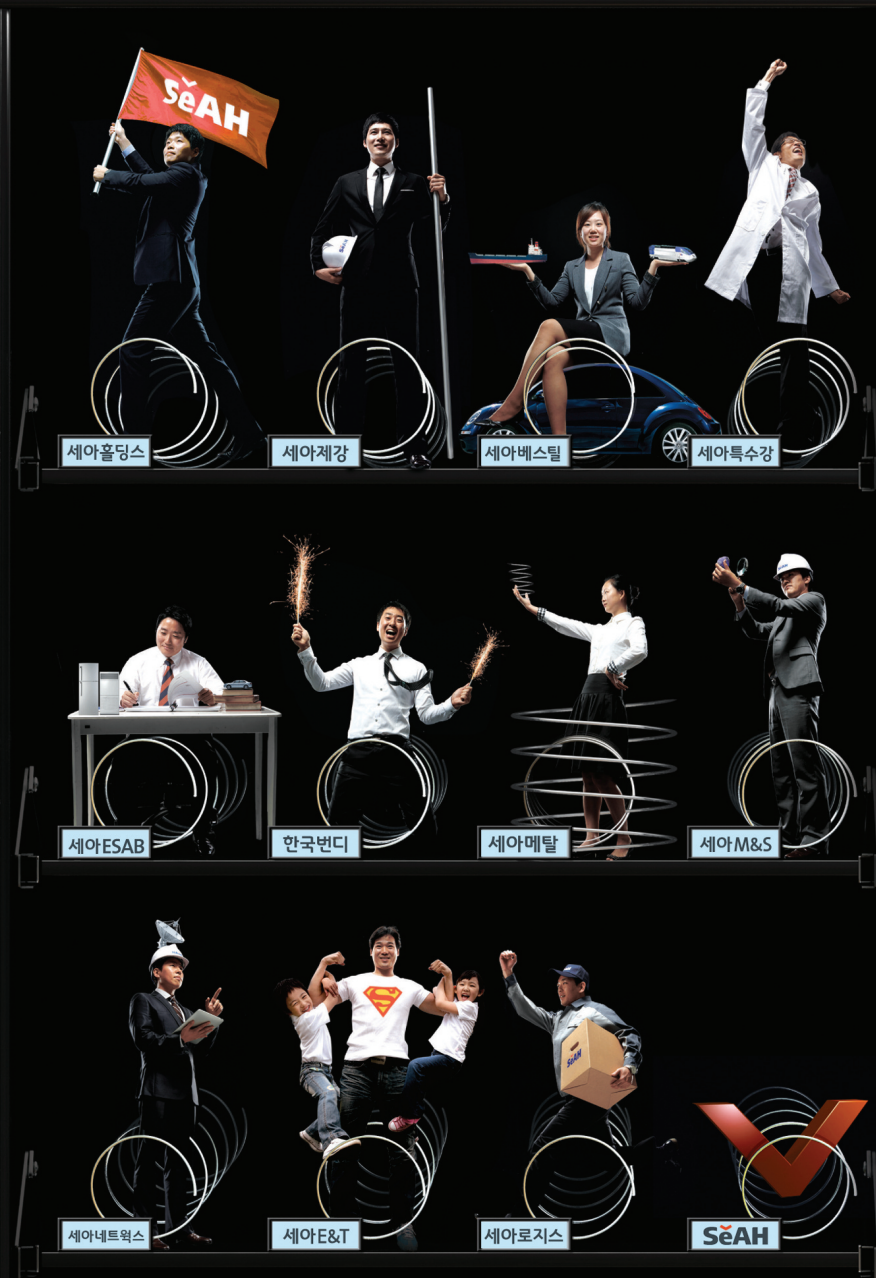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와 고속철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누빌 것이며
더 놀라운 설비시스템과 IT기술 및 에너지산업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세아가 종합 인프라기업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증거다

SeAH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한국번디 · 세아 ESAB
세아메탈 · 세아 M&S · 세아 E&T · 세아네트웍스 · 세아로지스

세 아 가 조 금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세 아 가 조 금 2013 01+02

01+02
JAN + FEB 2013
Relationship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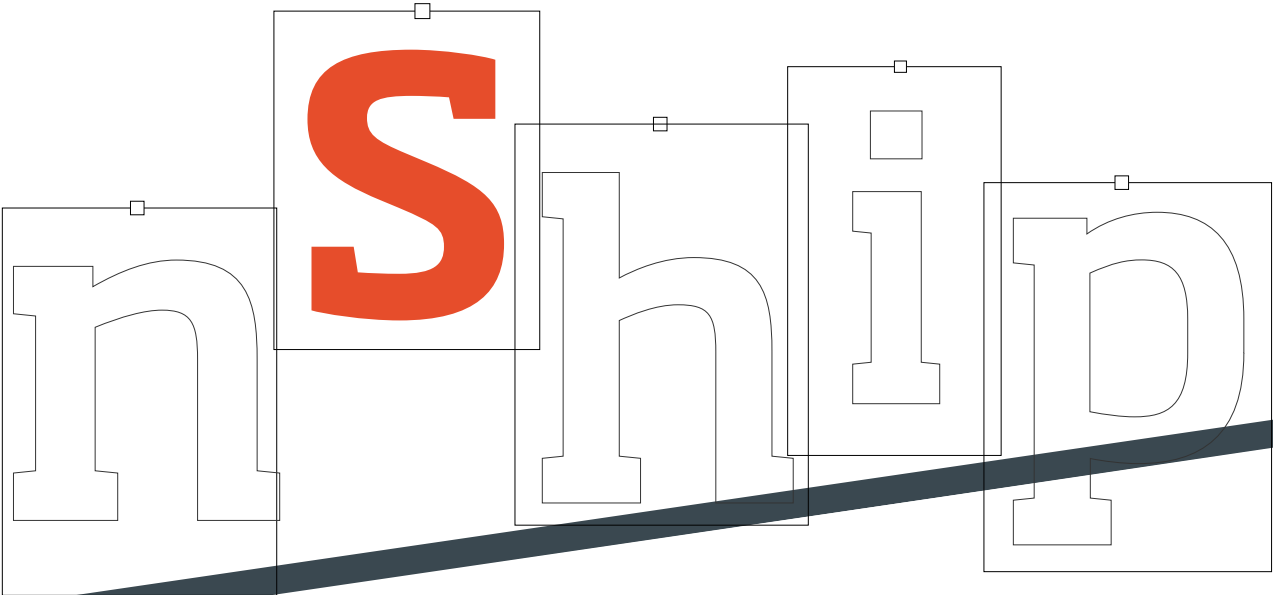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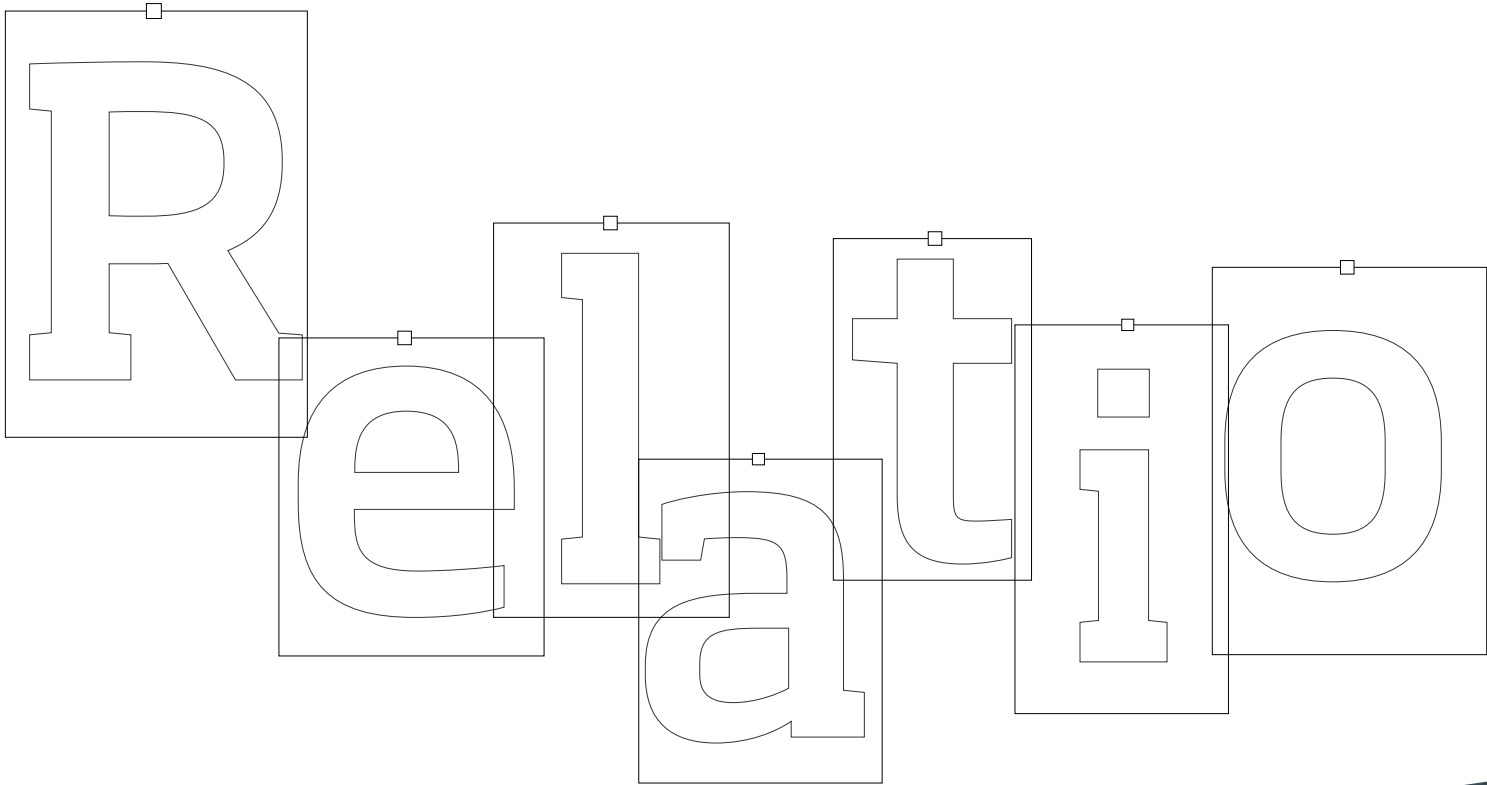
SeAH

CONTENTS

JANUARY + FEBRUARY 2013
VOL. 343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eAH

04	CEO MESSAGE	신년사
06	SPECIAL THEME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
08	OUR HARMONY	세대공감 通하였느냐!
12	SeAH IN THEME	미래를 밝히는 열린 에너지, 소통
14	GREAT STORY	경청과 배려, 공감으로 엮어낸 세종의 소통
16	CHECK LIST	당신은 사람들과 얼마나 잘 통(通)하는 사람인가요?

HIGHLIGHT
SeAH

17	SeAH'S CORE VALUES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 핵심가치 발표
18	FOCUS	2013 그룹 신년회의 2012 세아경영상 · 세아업적상 세아베스틸 회계팀 2012 하반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세아 CI 디자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22	TEAM MISSION	
26	HOT ISSUE	
32	ZOOM IN	

HIGH-FIVE
SeAH

33	CAMPAIGN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34	HIDDEN CHAMPION	충남미의 열정을 품은 남자 _ 세아제강 수출3팀 김승환 대리
38	LOVE & COMPASSION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조용한 기부를 이어가는 이운형 회장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의 작은 음악회 SSV,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다 유연하게 후배 대하기 VS 똑 부러지게 상사 섬기기
44	COMMUNICATION TOOL	세아뉴스
46	SeAH NEWS	사우동정
49	SeAH PEOPLE NEWS	에필로그
50	EPILOGUE	세아인을 감동시키는 나만의 노하우
51	SECRET NOTE	

<세아가족> 통권 343호 2013년 01+02호
발행일 2013년 2월 10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 · 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3
디자인 · 제작 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촬영 Season2 Studio 02-538-9916
표지모델 세아제강 수출3팀 김승환 대리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CEO MESSAGE

신년사

**비교 우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며**

**경쟁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



세이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 그리고 기대와 함께, 마음에 새겨두었던 지난날의 다짐들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설레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새해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울한 예측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세계 경기는 하락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국내 경기는 상반기에도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선 정도가 경기 회복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도 2~3%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기조는 철강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영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쳐 기업들에게는 더욱 막중한 기대와 책임이 부여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 국내 철강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전략보다는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경영에 초점을 맞춰 불황에 맞서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아는 비교 우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세아는 창업 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사 통합 사옥 입주를 추진했습니다. 통합 사옥은 그룹사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세아는 시장 경쟁력을 배가하여 극심해지는 경쟁 상황을 극복하며 전천후적으로 체질이 강건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장을 보다 넓게 보고, 기존 협력사는 물론, 유관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과 상호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에 계속해서 매서운 한파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아인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변함없는 노력이 뒤통나면 반드시 그 위기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호황, 불황을 불문하고 윤리 경영과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저성장기에 꾸준히 지속되는 사회공헌 활동은 고객들에게 세아의 진정성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의 근절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 예방 등 한 단계 높은 윤리 경영 실천에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힘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세아 역시 한층 더 내실 있는 강한 기업,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고자 하는 의지가 세이가족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한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상황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이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열리는 2013년도 슬기롭게 건설적인 한 해로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세이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 장 이 운 형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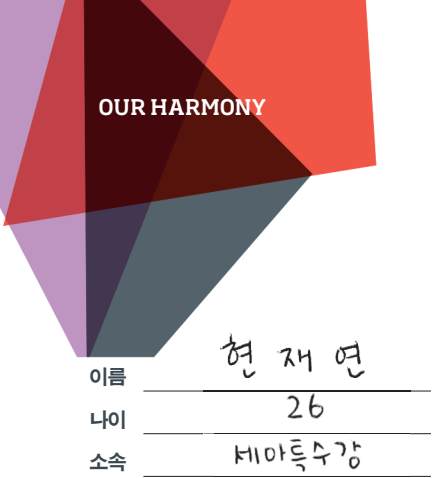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속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라. - 아우렐리우스 -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다리가 연결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리를 잇는 방법은 바로
'소통'입니다.

2013년 새해에는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동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에 다리를 이어가는
세아가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OUR HARMONY

이름 현 재 연
나이 26
소속 세아특수강

1. 내가 닮고 싶은 소통의 달인은? 2

- ① 150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작가 이와수
- ② 배려와 유머로 소통하는 개그맨 유재석
- ③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방송인 김미화
- ④ 종교를 뛰어 넘은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故김수환 추기경

2.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1

- 대화나 소통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 ① 단 한 시간도 못 견딜 것이다.
 - ②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다.
 - ③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 ④ 나는 죽을 때까지 무인도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3. 나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4.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1

- ① 따뜻한 눈빛
- ② 부드러운 말투
- ③ 적당한 유머감각
- ④ 적절한 제스처

5. 나는 우리 부서에서 소통서열 3위라고 생각한다.

6.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는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2

- 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②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소주 한 잔(티타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 ③ 소통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거나 교육을 받았다.
- ④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7. 소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3

- 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할 때
- ②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
- ③ 내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 ④ 나는 소통의 달인이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8. 세아가족 중 세아특수강 (계열사, 파트) 방송판매 (링 팀) 조인제 대리 (이름과 직책)가 소통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그 이유는 먼저 다가가 챙겨주시기 때문이다.

9. 소통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3

- ① 여러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
- ② 오래오래 끓여야 깊은 맛을 내는 사골곰탕
- ③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김치
- ④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양식 삼계탕

10. 이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하고 싶지 않다! 2

- ① 설 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수다형
- ②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는 묵묵부답형
- ③ 자신의 의견만 밀어붙이는 독재자형
- ④ 까다로움이 도를 넘은 까칠형
- 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다혈질형

11.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 ① 무관심
- ② 이기주의
- ③ 불신
- ④ 단절

1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통이란? 2

- ①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 ②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 ③ 무엇이든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
- ④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

13. 나에게 소통이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 이다.

이름 조 민 우
나이 33
소속 세아제강 자금팀

1. 내가 닮고 싶은 소통의 달인은? 2

- ① 150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작가 이와수
- ② 배려와 유머로 소통하는 개그맨 유재석
- ③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방송인 김미화
- ④ 종교를 뛰어 넘은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故김수환 추기경

2.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1

- 대화나 소통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1
- ① 단 한 시간도 못 견딜 것이다.
 - ②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다.
 - ③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 ④ 나는 죽을 때까지 무인도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3. 나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 할 때, 상대방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4.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3

- ① 따뜻한 눈빛
- ② 부드러운 말투
- ③ 적당한 유머감각
- ④ 적절한 제스처

5. 나는 우리 부서에서 소통서열 3위라고 생각한다.

6.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는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2

- 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②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소주 한 잔(티타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 ③ 소통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거나 교육을 받았다.
- ④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7. 소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3

- 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할 때
- ②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
- ③ 내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 ④ 나는 소통의 달인이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8. 세아가족 중 세아특수강 인재개발파트 (계열사, 파트) 팀) 홍성운 사원 (이름과 직책)가 소통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밝은 미소로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9. 소통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1

- ① 여러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
- ② 오래오래 끓여야 깊은 맛을 내는 사골곰탕
- ③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김치
- ④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양식 삼계탕

10. 이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하고 싶지 않다! 5

- ① 설 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수다형
- ②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는 묵묵부답형
- ③ 자신의 의견만 밀어붙이는 독재자형
- ④ 까다로움이 도를 넘은 까칠형
- 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다혈질형

11.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 ① 무관심
- ② 이기주의
- ③ 불신
- ④ 단절

1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통이란? 4

- ①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 ②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 ③ 무엇이든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
- ④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

13. 나에게 소통이란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조건 이다.



20대

세대공감 通하였느냐!

OUR HARMONY Generation to Generation

“SNS로 동료들과 소통한답니다.”

현재연 (세아특수강 재무파트)

저는 SNS를 통해서 동료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해요. 축하나 격려를 해주고픈 동료가 있으면 퇴근길에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구요~ 이런 온정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

조민우 (세아제강 자금팀)

우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기 전, 먼저 귀담아 듣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구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30대



이름 이성복
 나이 33
 소속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1. 내가 닮고 싶은 소통의 달인은? 4
- ① 150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작가 이외수
 - ② 배려와 유머로 소통하는 개그맨 유재석
 - ③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방송인 김미화
 - ④ 종교를 뛰어 넘은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故김수환 추기경

2.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대화나 소통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
- ① 단 한 시간도 못 견딜 것이다.
 - ②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다.
 - ③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 ④ 나는 죽을 때까지 무인도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 ⑤ 기타

3. 나는 함의 점을 찾아 가는 때, 상대방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4.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
- ① 따뜻한 눈빛
 - ② 부드러운 말투
 - ③ 적당한 유머감각
 - ④ 적절한 제스처

5. 나는 우리 부서에서 소통서열 2위 라고 생각한다.

6.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는 이런 노력까지 해왔다. 2
- 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②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소주 한 잔(티타임) 하며 속 마음을 털어놓았다.
 - ③ 소통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거나 교육을 받았다.
 - ④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7. 소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2
- 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할 때
 - ②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
 - ③ 내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 ④ 나는 소통의 달인이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8. 세아가족 중 돌딩스 인재개발파트 (계열사, 파트) 팀 심가람 대리 (이름과 직책)가 소통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비 세아민들에게 그 이유는 세아를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9. 소통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3
- ① 여러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
 - ② 오래오래 끓여야 깊은 맛을 내는 사골곰탕
 - ③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김치
 - ④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양식 삼계탕
 - ⑤ 기타 :

10. 이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하고 싶지 않다! 5
- ① 설 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수다형
 - ②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는 묵묵부답형
 - ③ 자신의 의견만 밀어붙이는 독재자형
 - ④ 까다로움이 도를 넘은 까칠형
 - 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다혈질형

11.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 ① 무관심
 - ② 이기주의
 - ③ 불신
 - ④ 단절

1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통이란? 2
- ①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 ②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 ③ 무엇이든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
 - ④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

13. 나에게 소통이란 서로의 이해를 통해 이다. 시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름 주훈아
 나이 41
 소속 세아메탈 (수출팀)

1. 내가 닮고 싶은 소통의 달인은? 2
- ① 150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작가 이외수
 - ② 배려와 유머로 소통하는 개그맨 유재석
 - ③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방송인 김미화
 - ④ 종교를 뛰어 넘은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故김수환 추기경

2.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대화나 소통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5
- ① 단 한 시간도 못 견딜 것이다.
 - ②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다.
 - ③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 ④ 나는 죽을 때까지 무인도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 ⑤ 기타 무인도에 대해 파악이 완료될 때까지

3. 나는 서로의 생각 차이가 중화하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4.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5
- ① 따뜻한 눈빛
 - ② 부드러운 말투
 - ③ 적당한 유머감각
 - ④ 적절한 제스처
 - ⑤ 기타 : 상대방과 나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5. 나는 우리 부서에서 소통서열 2위 라고 생각한다.
6.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는 이런 노력까지 해왔다. 3
- 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②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소주 한 잔(티타임) 하며 속 마음을 털어놓았다.
 - ③ 소통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거나 교육을 받았다.
 - ④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7. 소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2
- 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할 때
 - ②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
 - ③ 내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 ④ 나는 소통의 달인이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8. 세아가족 중 세아메탈 (계열사, 파트) 복산영엽 팀 강대운 팀장 (이름과 직책)가 소통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수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9. 소통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5
- ① 여러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
 - ② 오래오래 끓여야 깊은 맛을 내는 사골곰탕
 - ③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김치
 - ④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양식 삼계탕
 - ⑤ 기타 : 홍어와 참치장 나에게 너무 맛있는 음식이지만 상대에게 혐오된 음식일 수 있어

10. 이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하고 싶지 않다! 3
- ① 설 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수다형
 - ②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는 묵묵부답형
 - ③ 자신의 의견만 밀어붙이는 독재자형
 - ④ 까다로움이 도를 넘은 까칠형
 - 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다혈질형

11.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 ① 무관심
 - ② 이기주의
 - ③ 불신
 - ④ 단절

1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통이란? 2
- ①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 ②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 ③ 무엇이든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
 - ④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

13. 나에게 소통이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 이다.



30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대리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소주 한 잔 하거나 점심식사 후 짬을 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구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서로가 함께 한다면 그 보다 좋은 소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소통의 비결”

주훈아 과장 (세아메탈 수출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도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말 속에 숨겨진 '본심'을 잘 잡아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본심을 잡는 비결은 바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40대



COMMUNICATION

미래를 밝히는

열린 에너지, 소통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잘 통하게 된다

조성각 팀장 (세아 M&S 영업팀)

팀장 부임 첫 달을 보내며 조성각 팀장이 첫째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다른 아닌 소통이다. 세아 M&S의 구매와 판매를 총괄하는 영업팀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 갈 실마리를 소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팀은 인원에 비해 업무 내용이 다양한 편이어서, 그동안 팀원 간에 업무를 공유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낸다고 해도, 소통 없이는 팀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힘들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팀에 소통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2013년, 세아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졌다.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는 팀워크 만들기에 열심인 두 팀장을 만나 ‘우리’의 가능성을 키워 줄 소통의 길을 물었다.

조성각 팀장은 평소 편안하게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에서도 팀워크를 발휘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 팀 내에서 소통이 필요한 업무가 많지 않다면, 업무 밖에서라도 자주 소통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소통이란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그 입장을 헤아리게 되면,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 기꺼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조성각 팀장과 팀원들은 올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지난해 열악한 시장 상황 탓에 회사 전체가 힘든 한 해를 보냈으니, 올해 연말에는 반드시 웃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금물.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면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올해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통합 사옥에 입주한 덕에 멀리 떨어져 있던 거래처 세아베스틸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업무 진행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오히려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준다면, 팀 안에는 밖에서는 소통을 위해 멈추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면,
우리 지금 만나!

문정훈 팀장 (세아제강 수출2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 어느 회사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세아제강 수출2팀은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한 팀이다.

“수출 업무를 하려면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지 시장 상황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우리 회사의 생산 현황까지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가격 경쟁력과 이윤을 고려한 최적의 가격으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죠. 수주한 제품을 기한에 맞춰 납품하는 데도 생산 부서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장의 가격과 제품 생산량은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2팀에서는 현지 네트워크를 비롯해 구매팀과 생산계획팀 등 관련 부서와의 소통 능력이 곧 업무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하루아침에 갖추기는 힘들다. 문정훈 팀장이 ‘소통을 위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다.

“팀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노하우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죠. 우리 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많은 편이지만, 선후배 간에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팀원 모두가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소통의 기술을 후배들과 공유한다는 수출2팀. 그렇다면 문정훈 팀장이 팀원들과 나누고픈 소통의 기술은 무엇일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사옥에 입주해 모두를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니, 올해 우리 팀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과 배려, 공감으로 역어낸 세종의 소통

조선왕조 가운데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세종.
그는 백성들이 쉽게 소통하도록 한글을 만들었고
신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인 집현전을 설립한
‘소통의 대왕’이었다. 소통의 화두가 여전히 유효한 오늘날,
600년 전 세종이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글 / 편집실

모두를 세종의 편으로 만든 무기, 소통

22살의 젊은 군주 세종이 즉위 직후 풀어야 했던 과제는 원로대신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어린 그가 연로한 신하들의 마음을 얻은 방법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것.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우의정과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다” 즉, 내가 잘 몰라 그대들과 의논하고 싶으니 앞으로 잘 도와줬으면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실제 세종은 대신들과 격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의를 할 때는 부복(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금했고, 토론 중에 나온 좋은 의견은 그 즉시 명을 내려 시행하였으며, 아무리 신하들이 왕을 비판하고 반

대하더라도 일단 “네 말이 아름답다”거나 “그 뜻이 좋다”고 경청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최만리를 사사로운 감정 없이 포용한 것도, 황희, 맹사성, 신숙주, 성삼문, 장영실 등 수 많은 인재들을 자신 곁으로 모이게 한 비결도 바로 세종의 소통의 리더십에 있었다.

훈민정음

- 백성을 위한 소통의 매개체

드라마 ‘대왕 세종’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잠행을 나갔던 세종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쫓기고 있는 노비와 만나게 된다. 노비는 사키대로 문서에 서명했을 뿐인데 그 문서가 족쇄가 되어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문서 내용, 즉 글을 몰랐기 때문에

The Best communicator Sejong the Great

벌어진 일이었다. 이 때 세종은 백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크게 괴로워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계기가 된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도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소통이 어렵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없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훈민정음 서문의 ‘나랏말싸미 사맛디 아니하다’는 문장에서 ‘사맛디’란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한다’ 즉 소통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서문에서 알 수 있듯 세종은 한글이 소통 매개체로 사용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의 모든 근간은 애민(愛民)에 있었다. 임신한 노비에게 100일 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몸소 농부를 찾아가 농사짓는 법을 기록한 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장영실로 하여금 민생을 풍요롭게 할 과학 기구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종의 애민정신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란 사람을 좋아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다.

다시, 세종의 소통으로

세종이 재위했던 시기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과학, 외교,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던 이른바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이는 소통이 근간이 된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소통은 조직과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한다. 리먼브러더스 CEO 리처드 폴드는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독선적으로 행동해 결국 파산했고, 골드만삭스 CEO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두 기업의 사례는 소통이 바로 위기극복과 성과창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려준다.

소통이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을, 그리고 소통을 근간으로 한 조직과 국가가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지를 세종은 600년 전 이미 보여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세종을 민족의 위대한 성군(聖君)으로 추앙하는 이유이자 세종의 소통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Communication check list

당신은 사람들과 얼마나 잘 통(通)하는 사람인가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소통 점수를 확인해 봅시다.

- | | | |
|---|--|---|
| ☐ 01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이 쑥스럽지
않다. | ☐ 05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 ☐ 10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항시 마음을 쓴다. |
| ☐ 02
표정이나 제스처가
풍부하며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 ☐ 06
곤란하거나 싫은 상대라도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다. | ☐ 11
타인을 내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
| ☐ 03
상대의 얼굴표정,
말투만으로 의중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 ☐ 07
어떤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
편이다. | ☐ 12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
| ☐ 04
누가 나의 의견에 반대해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 ☐ 08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 ☐ 13
열린 시각을 갖기 위해 평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긴다. |
| | ☐ 09
나보다 어린 사람도 항상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 1~3점 | 문제 상황에 접했을 때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나
요? 소통은 타인과 내가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 4~6점 | 소통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대화방법이나 스킬이 부족한 것 같군요. 표정이나 말투 같은 비언
어적 표현이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성을 대할 때는 특히 더 유의하도록
하세요. |
| 7~9점 |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군요. 체크리스
트 항목 중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면 훌륭한 소통의 달인이 될 것
같네요! |
| 10점 이상 |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도 세련돼 언제나 인기 만점인 당신! 상대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멋진 당신은 진정한 소통의 달인! |

위대한 기업의 첫 단추는 바로 '핵심가치'다. 핵심가치란 임직원이 회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가치는 강력한 기업문화와 탁월한 성과의 원천이자,
장기적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 세아는 2012년 하반기부터 그룹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핵
심가치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최종 결정된 세아의 핵심가치는 '정직' '열정' '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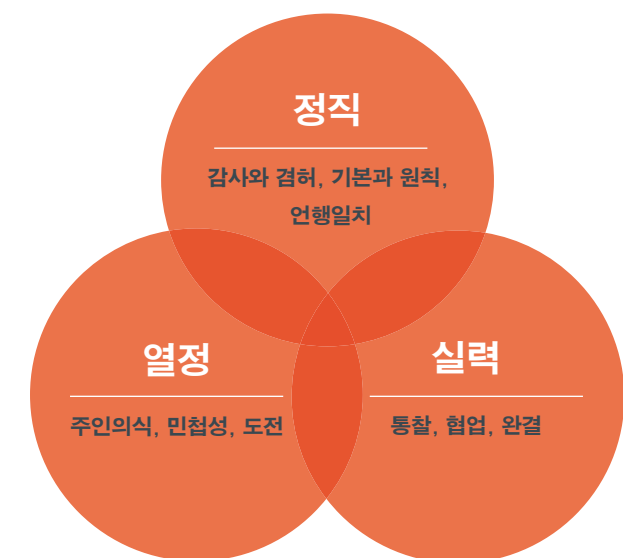
SeAH's Core Values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 핵심가치 발표

Mission 미션

“세아는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일터, 올바른 제품을 통하여
사람을 소중히 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Core Values 핵심가치



Code of Conduct 행동강령

정직은 세아의 머리와고
열정은 세아의 가슴이며
실력은 세아의 손과 발이다



SeAH 2013 그룹 신년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연다

2013년 그룹 신년회의가 1월 1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침체와 수출악화 속에서 분투했던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짚어보고, 올 한해의 경영계획 및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통합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화합하고 소통해줄 것이 강조됐다.



불황 속 의미 있는 성과

2012년은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수출악화 속에서도 그룹 매출액이 증가한 결실을 보였다. 세아제강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으며, 세아베스틸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 자리를 지켜냈다. 특히 지난해는 해외 매출액이 증가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세아특수강과 포스코차이나의 제2 합작 법인을 중국 텐진에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둔 한 해였다.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미래를 준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인 불황 속에서도 세아는 거시적 안목으로 201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신사업 및 신제품,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여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고 전략적 제휴와 연관 산업 M&A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EXECUTIVE CONFERENCE



돌파구는 '차별화', 화두는 '통합과 소통'

이운형 회장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유례없는 불황"이라고 서두를 연 후 "위기를 극복할 키워드는 바로 '차별화'"라고 말했다. "IMF도 이겨낸 저력 있는 세아는 지금의 경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위해서는 경쟁사가 보 유하지 못한 세아만의 차별점을 찾아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 생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해 줄 것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두가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통합 사옥에 다수의 계열사가 입주할 완료하게 되어 어느 해보다 통합과 소통,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될 예정이다. 계열사들은 2012년 12월부터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세아타워 이전을 시작해 통합 사옥에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각오로 문을 연 세아의 2013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화합해 새로운 50년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할 것을 기대한다.



한 해 동안 해당 부문에서 우수한 경영활동을 수행한 회사를 시상하는 '세아경영상'과 각 분야에서 회사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세아업적상' 시상식이 2013 그룹 신년회의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 세아경영상으로는 미래성장 부문에 세아제강만이 수상을 거머쥐었다. 세아업적상은 기술개발 부문 금상에 한국번디 유병희 과장이 선정되고, 은상에는 세아제강 이성철 팀장, 세아베스틸 신정호 차장, 세아특수강 류진희 팀장, 세아메탈 서성문 팀장이 선정됐다. 영업 부문 은상에 세아제강 김익곤 팀장, 특별상에는 포스세아 전주병 총경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2 SeAH Awards

Standing Ovation

2012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

2012 세아경영상 · 세아업적상

세아경영상
미래성장



세아제강 미래성장 기반 구축과 최대 매출 시현

세아제강은 2012년 3월 대구경 후속 업체인 SPP강관을 인수하는 대규모 M&A에 성공하고 SAW 중심의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ERW 설비에 대한 차별적 투자와 SAW 설비 확대로 API 생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스파이럴, 후속 대구경 API, 후속 대구경 해양구조물로 신시장을 개척했다. 사업장별 제품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투자로 수출 증대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중장기 전략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사상 최대 매출을 시현하는 성과를 거두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세아업적상

기술개발 금상

한국번디 연구1팀
유병희 과장 외 2명

ALFOS 신제품 개발

냉장고 핵심 튜브 제품 중 하나인 Capillary 튜브 원재료의 단점을 극복한 신제품 ALFOS를 개발하여 신규 매출 창출에 기여하고, 단기간에 높은 시장점유율(대형 냉장고 30%)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술개발 은상

세아제강 생산팀
이성철 팀장 외 9명

Q/T 열처리 시스템 구축, 신제품 개발 및 품질 조기 안정화

약 2년여의 체계적인 사전 조사와 연구 개발로 자체 기술을 접목하여 Q/T 열처리 설비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신제품 개발과 품질 안정화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에도 기여했다.



기술개발 은상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신정호 차장 외 2명

고출력 엔진 커벡팅 로드용 고강도강 개발

특수강의 수요 산업인 자동차는 경량화와 고강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 대비 피로강도 30% 이상 개선한 신 강종 SFMN 436VS를 개발해 매출과 수익성 증대에 공헌했다.



기술개발 은상

세아특수강 설비팀
류진희 팀장 외 3명

CDO-3호기 설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품질 향상

CDO-3호기 설비를 합리화하고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도 성공하여 고질적인 문제였던 직진도 편차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현장 환경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기술개발 은상

세아메탈 품질개발팀
서성문 팀장 외 2명

냉간압조 스테인리스 와이어용 E-CO(수산업 피막) 개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고온, 고압에서 견고하게 보호하는 피막품을 최초로 개발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업 피막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매출 및 수익성 확대에도 크게 공헌했다.



영업 은상

세아제강 수출1팀
김익곤 팀장 외 1명

SHELL 환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 에너지 기업 SHELL 환에 안정적으로 수주할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강관제조사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 EFA(Enterprise Framework Agreement) 체결로 Top Class Pipe 회사로 발돋움 할 기회를 만들었다.



특별공로상

POS-SeAH Steel Wire
전주병 총경리

중국 사업장 조기 기반 구축으로 제2 도약 교두보 마련

포스코차이나와 합작 투자한 세아특수강 최초의 해외 진출 사업장 포스세아(POS-SeAH)의 공장을 1년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중국 내 생산 및 판매기지 확보 뿐 아니라 조기 흑자를 실현시켰다.



WE ARE THE BEST

‘우리가 제일 잘 나가!’

**팀원들과 함께한
수상한 보물찾기!**

세아베스틸 회계팀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일도
잘하는 법!

앞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

하고자 세아베스틸 회계팀

양희경 팀장이 판을 벌였다.

‘1+1=2’라는 뻔한 공식을 깨는

영민한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기업경쟁력에 힘을 실는

무소불위의 전략들이 속속 세상에

나오는 참이다.



힘든데, 즐겁다? 수상한 보물찾기

이런 구경 흔치 않다. 회사 한복판에서
때 아닌 보물찾기가 한창이다.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냐?”는 의심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다들 은근히 신이 나는
눈치다.

미션은 승부에 초연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일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놀기로 유명한 회계팀답게,
일사불란한 움직임 사이사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회계팀의 행동대장 정현기 과장과 막내
인유나 사원이 ‘우리가’ 단어를 찾아
선발대로 나섰다. 하필 둘이서 세 글자
미션을 골라 마음이 급해서일까, 손에 든
카메라는 아까부터 쪽 개점휴업 상태다.
회계팀 공식 대변인 정현기 과장이
오늘처럼 말수 적은 모습도 처음이란다.
평소 취미가 무려 ‘1,000 피스 퍼즐
맞추기’라는 인유나 사원도 어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끝에 급기야 “시간 안에 못

1+1=More! 끈기와 열정으로

춤춤히 직조한 시간들

새 신을 신으면 웬지 근사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 같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풍경과

대면하게 될 것 같은 설렘. 그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세아의 ‘전우’들과 함께라면

이제껏 몰랐던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가는

이들의 표정에서 한결 여유로움이

문어나는 오후, 난생처음 새 운동화를

신어본 아이처럼 들뜬 얼굴의 세아베스틸

회계팀 직원들이 한겨울 청량한 공기를

끌어안았다.

미션의 규칙은 간단하다. 팀원들이 3개로

조를 나누어 세아타워 주변의 간판과 POP

등에서 한 글자씩 찾아내어 ‘우리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을 완성한다. 제한시간

20분 안에 현장에서 촬영한 8개 글자의

사진이 양희경 팀장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면 OK! 성공할 경우 최고의

파티세가 만든 달콤한 머핀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1
글자를 찾은 후 인증샷을 찍는
정현기 과장과 인유나 사원.
‘우리가 일등이겠지?’





2 최준열 사원과 유동훈 대리 콤비는 환상의 호흡으로 최단시간에 미션 클리어!
3 미션 성공 후 달콤한 머핀 타임~ 팀원들과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다.



끝내면 자발적 야근에 돌입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놔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보물찾기에 유동훈 대리-최준열 사원도 서서히 승부욕이 샘솟는 듯하다. 메세나폴리스 쇼핑몰 내 일식돈가스 매장에서 '일' 글자를 단번에 득템(!)한 후 여성속옷매장 앞에서 또 한번 행운과 맞닥뜨렸다.
"제깅스가 뭐지? 레깅스 사촌인가? 암튼 '제' 글자가 확실하게 잘 보이죠?"
"어허~ 이 사람,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사진이 너무 흔들렸잖아. 우리는 작품성으로 승부하기로 한 거 잊었어? 그렇지, 잘한다!"
단체 미션의 핵심은 호흡이라더니, 함께 머리 맞대고 퍼즐을 맞추며 듣는 동료의 숨소리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빠근해진다.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한 정예조로 시작부터 기대를 보았던 안홍규-권명휘-김잔디 사원 조는 시종일관 야수라장이다. 두 글자는 진작에

찾았지만 희한하게 눈에 띄지 않는 '잘' 글자를 찾아 헤매던 중, 중앙광장의 명물 소원나무 앞에 선 세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회계팀 살림꾼 김잔디 사원이 '올해도 우리 세아베스틸 회계팀이 제일 잘 나가게 해 주세요!'라는 소원카드를 즉석에서 써서 소원나무에 붙이고, 페어플레이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 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샷도 찍었다.
그룹사 홈페이지 모델 경력에 빛나는 안홍규 사원은 미션 수행 중 뜻밖의 수확까지 얻었다. "신사옥에 이사 온 뒤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직 주변 탐방을 꼼꼼히 못 했는데, 오늘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니 과연 흥미진진한 핫플레이스더군요. 좀 전에 모퉁이를 돌아 발견한 양복점에서 이번 주까지 특가세일한다는 고급 정보도 얻었으니, 조만간 서울 차도남 이미지에 맞게 근사한 양복 한 벌 맞추까 합니다. 하하!"



4 세아그룹 홈페이지 모델 경력에 빛나는 안홍규 사원의 자체발광 미모!
5 안 되면 되게 하라! 없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김잔디, 권명휘 사원
6 우리가 제일 잘 나가! 팀원들이 찾은 미션 글자들
7 마포구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세아타워. 높다 높아~

이 사람들의 전투력

웃고 떠들며 게임에 몰입하던 사람들이 업무 이야기가 나오니 눈빛이 또렷해진다. 세아베스틸 회계팀은 2012년 숙원 사업이었던 특수강 원가계산시스템을 재구축한 데 이어 사업장 추가에 발맞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차곡차곡 미래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는 참이다. 뿐만 아니다. 자금청구 프로세스 간소화 및 전산화로 업무 생산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전표 발생량도 최소화했다. 영역을 확대하면서 업무량이 는 만큼 일할 맛도 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보 전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양산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세아베스틸의 새로운 도약은 이런 고민들의 현재 진행형이자 결과물이기도 하다. 올해도 혁신은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최적의 원가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매출채권 건전성 검토에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때로 막내가 팀장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믿는 양희경 팀장은 기획과 생각의 평등함을 추구하는 리더다. '업무 외 시간에는 방목과 무관심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예외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더 좋은 길을 찾아내어 혼수도 두고, 고심 끝의 무리수로 바짝 움츠러든 선수들 기를 살리느라 여념이 없다.

소통이 더욱 짜릿해진다

어느덧 풍성해진 문장. 하나둘 맞추다 보니 이제 정말 몇 개 남지 않았다. 종료시각을 5분 남겨두고 정현기 과장-인유나 사원 조가 "미션 클리어!"라는 외침과 함께 게임오버를 알렸다. 사이좋게 임무를 완수하고 달콤한 머핀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중,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마침내 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양희경 팀장의 너스레에 또 한 차례 웃음꽃이 피었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한다. 맨정신에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업무시간 보물찾기로 또 한 번 그 '미친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신발 끈을 다시 견고히 매고 땀과 함께 일상의 묵은 각질을 날려버리며, 세아베스틸 회계팀 임직원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뜨겁다.





연탄은 사랑을 싣고



세아인이 되는 첫 걸음, 신입사원 기본과정

1월 7일부터 18일까지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2012

하반기 신입사원 기본과정이 치러졌다. 42명의 신입사원들은 세아그룹 소개와 윤리경영을 시작으로 신입사원의 역할과 자세,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비즈니스 매너, 보고방법의 이해, 회계 원리, 기업경영의 이해 등의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마인드와 현업에서 활용할 다양한 스킬을 배웠다. 특히 교육 5일차에 진행된 오대산 야간행군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일깨우고 진한 동료애를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다. 42명의 신입사원들은 기본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각 부서로 배치됐다.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던 2012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들이 교육과정 와중에도 '사랑의 연탄배달'에 참여했다. 매서운 칼바람도 비켜간 뜨겁고 훈훈했던 봉사활동 현장으로 떠나보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새 세아인' 42명의 다이어리

추위야 물러가라, 세아 신입사원들이 나가신다!

차가운 날씨에 길이 푹푹 얼어붙었던 1월의 어느

날. 남양주 연탄은행 앞으로 우의를 입은 청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온 젊은이들이기에 저렇게 흰 칠한가 싶었더니 세아그룹 2012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들이란다. “안녕하세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신입사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트럭으로 연탄을 옮기기 시작했다. 앞 사람에게 받아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트럭에 올려 수량을 확인하는 진지한 눈빛! 계속 반복되는 노동에 지칠 만도 한데 삶은 내색은커녕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이내 하하호호 웃음꽃이 터졌다. 단 한 장도 떨어트리는 실수 없이 트럭을 꽉 채운 1,000여 장의 연탄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온기로 가득 채워 주었다.

HOT ISSUE Brand New Day

나눔의 가치와 정을 느낀 시간

배달 장소는 남양주시 외곽에 위치한 조안면 일대의 4가구. 연탄은 각

가정에서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인 250장으로 나누어 쌀, 라면과 함께 전달됐다. 신입사원들은 숨겨둔 힘(?)을 과시하려 한 번에 두 세장씩 들다가 주의를 받아 웃음을 터지게 했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어르신이 몇 번이나 고맙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조안면은 '찐빵'으로 유명한 곳으로 도로마다 찐빵 가게들이 줄을 이어, 배달 장소로 이동할 때 신입사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인솔자였던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황성운 사원은 연탄을 옮기는 동안 따끈한 찐빵을 몰래 준비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세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입사원 기본과정 일정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연탄배달'은 세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신입사원들이 연탄배달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나눔의 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래서이다. 이번 연탄배달이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의 의미를 실천해 나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Hi Folks!

- 01 이현수 (세이특수강)

'애인'이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아끼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 02 전완성 (세이베스틸)

'조명'이다. 세아는 내 인생을 밝게 빛내주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니까. 언제나 감사와 초심을 잊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겠다.
- 03 임자혜 (세이베스틸)

'애니지'이다. 합격하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세아는 나에게 애니지가 될 것이니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04 이강토 (세이베스틸)

'새로운 아침'이다. 세아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치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원이 되겠다.
- 05 오해린 (세이베스틸)

'시원한 맥주'이다. 고된 하루를 달래는 한 잔의 맥주처럼, 대학생 활의 피로를 한 방에 풀어주었다. 꼭 입사하고 싶었던 세아의 가족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겠다.
- 06 이충원 (세이제강)

'도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처럼 앞으로 내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될 테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을 보여주겠다!
- 07 정창일 (세이제강)

'제상'을 향한 이우성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한 내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었으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 08 최성규 (세이특수강)

'출발'이다. 밝은 희망의 문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아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이 되겠다.
- 09 임윤수 (세이베스틸)

'출발'이다. 멋진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세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장 밑에서 세아를 받쳐주는 핵심 인자가 되겠다.
- 10 장영배 (세이베스틸)

'안경'이다. 불안하고 불투명했던 미래를 밝게 보이게 해주었으니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신입사원답게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열정과 패기로 중무장한 2012 하반기



Welcome to

- 11 이재원 (세이제강)

'제2의 무대'이다. 내 인생의 1/3을 보내는 곳이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니깐.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출전수범하여 세아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겠다.
- 12 손동훈 (세이베스틸)

'내 꿈을 펼칠 공간'이다. 나의 꿈과 열정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친환경 경영을 책임질 믿음직스러운 사원으로 성장해, 10년 뒤 세아에서 가장 깨끗한 사업장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 13 권중재 (세이제강)

'감사'이다. 세아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내 꿈을 실현시켜주었으니까. 미래 신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든든한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
- 14 나보미 (세이제강)

'동반자'이다. 평생의 동반자처럼 내 인생을 세아와 함께 걸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늘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 15 정석원 (세이제강)

'품격'이다. 세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세아에 함께 걸어가고 싶어하는 열원이 되겠다.
- 16 정재우 (세이특수강)

'가족'이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내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다.
- 17 이성훈 (세이제강)

'첫 구두'이다. 입사하면서 구입한 첫 구두의 살림을 잊지 않고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에 충실하면 밝은 미래가 열린다'라는 생활신조로 세아의 새로운 50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
- 18 이상현 (세이제강)

'싸이'이다. 우리나라를 알린 싸이처럼 나도 세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세아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
- 19 이희재 (세이제강)

'원동력'이다.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함께 일하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세아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 20 아산일 (세이특수강)

'출발선이자 도착점'이다. 세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가고 싶기 때문이다. 항상 성실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21 윤여웅 (한국번디)
'기사회생'이다. 세아는 마지막에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세이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겠다!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SeAH!

- 22 박기태 (세이특수강)

'풍선'이다.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듯 세아에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세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 23 남궁진 (한국번디)

'갯돈 받은 날'이다. 나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을 맺어주고 내 꿈을 실현시켜주었으니까. 세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24 이정희 (세이특수강)

'나침반'이다.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이자, 인생이라는 여행의 동반자니까. 꼭 입사하고 싶었던 세아의 가족이 되어 정말 기쁘고, 세아와 함께 세게로 나아가고 싶다.
- 25 김광수 (세이베스틸)

'세계지도'이다. 언제 어디 있더라도 목적이와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배워가며 회사에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다.
- 26 장다훈 (세이제강)

'여행'이다.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앞으로 세아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니까. 세아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넘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겠다.
- 27 정희태 (세이제강)

'소금'이다. 음식의 간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나도 세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예스맨 신입사원 정희태가 되겠다!
- 28 최만규 (한국번디)

'명함'이다. 이제 나는 세아이고, 세아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아에 꼭 필요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 29 김보람 (세이베스틸)

'선행'이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니까. 항상 다들 보석으로 거듭나고 싶어. 언제나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마음 기쁨과 끈기로 신뢰를 키워가겠다.
- 30 이원석 (세이제강)

'또 다른 원석'이다. 섬세한 가공을 통해 보석으로 거듭나듯, 세아와 함께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고 싶다.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다.
- 31 신영재 (세이베스틸)

'첫사랑 & 마지막 사랑'이다.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이자 나의 평생 동반자가 될 회사이기 때문이다. 일찍 출근하고 회사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다.



- 32 이병준 (세이제강)

'상상 그 이상'이다.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세아의 멋진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세이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세아를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 33 김재영 (세이베스틸)

'타겟 포인트'이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하도록 노력하겠다.
- 34 배건호 (세이특수강)

'꿈'이다. 항상 꿈꿨던 회사이고,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움 일들에 새로운 생각을 접목시켜 최고의 사원이 되겠다.
- 35 이만우 (세이제강)

'오랜 친구'이다. 세아와 함께 오랫동안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싶다.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세아를 위해 일하고 싶다.
- 36 김형규 (세이제강)

'미래'다. 앞으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곳은일도 웃으며 출전수범하는 세아의 활력이 되고 싶다.
- 37 이준민 (세이제강)

'가족'이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동료들과 가족처럼 함께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
- 38 윤나연 (세이베스틸)

'현실'로 다가온 꿈의 시작'이다. 내가 하고 싶고 꿈꾸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세아의 모든 일을 우리 집 일처럼 생각하고 모든 업무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
- 39 함형석 (세이베스틸)

'운명'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줄곧 평생을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신입사원 젊은 열정으로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겠다.
- 40 최리선 (세이베스틸)

'또 다른 나'이다. 입사한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신입사원 젊은 열정으로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겠다.
- 41 송성준 (세이제강)

'동반자'이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 언제나 곁에서 서로를 지켜줄 존재니까.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 42 박원기 (세이제강)

'새로운 가족'이다. 앞으로 곁에갈 새 삶의 타전이기 때문이다. 세아의 새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겠다!

세아 CI 디자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아의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이 새롭게 교체됐다.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진행된 이번 개편 작업은 세아가 걸어온 50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나갈 50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eAH

브랜드 히스토리 & 콘셉트

새로 바뀐 CI 디자인은 서체 윤곽에 곡선을 가미하고 전용 색상을 교체하여 시대에 맞는 비주얼 언어와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레터마크는 50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 담긴 신뢰와 안정, 철강소재 리딩 기업으로서의 강인함과 유연함을 고루 갖춘 '균형의 미'를 나타낸다. 상단의 그래픽 요소인 'Rising Curve'는 변화와 도전의 프론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도전한다는 진취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메인 컬러인 'SeAH Gray'는 철강 제조업의 전문성과 자신감, 전통성을 바탕에 둔 기업의 신뢰와 포용력을 나타내고 'SeAH Orange'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에 도전하여 핵심 경쟁력을 창출하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유연하고 따뜻한 기업 가치를 상징한다.

통합된 그룹 가치를 시각적으로 강조

이번 CI 개편은 기업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갈 비주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픽 모티브와 체계적인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 세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세아만의 'Look&Feel'을 창출했다. 새로운 CI 디자인은 서울 통합사옥은 물론 계열사 전체에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계열사와 구성원 간 일체감을 높িয়ে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세아가 가진 신뢰와 열정의 이미지를 활용해 차별화된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명함



사원증



배지



쇼핑백



SeAH CAMPAIGN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웃으며 인사해보세요.

세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깐요

Seung



HOT LIKE FIRE

중남미의 열정을 품은 남자

세아제강 수출3팀 김승환 대리

Hwan

Kim

“天職”

그를 보면 천직이란 단어가 연상된다
 해외영업은 자신의 운명이고 하늘이
 내려준 일이라 말하는 남자
 용광로처럼 끓는 그의 가슴은
 뜨거운 중남미의 태양을 닮았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해외영업과의 만남

동글동글한 인상이 참 좋다. 스타일리스트의 낯선(?) 손길에도 어색함이 없고 장시간 계속된 촬영에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포즈를 취한다. 사람을 끄는 편안한 매력은 영업현장에서 다져진 내공이 아닌가 싶다. “원래 성격이 외향적입니다. 대학원 재학 시절에는 학생회장도 했을 만큼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김승환 대리와 세아제강의 만남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 학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후 중남미지역학으로 석사를 받은 그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자신의 강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다. 마침 세아제강에서 중남미지역 시장 개척을 시작한 단계였고 김승환 대리는 망설임 없이 해외영업 부문에 지원했다. 입사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 일을 배웠다고 하니 전공과 적성, 업무가 딱 맞아 떨어진 천직을 찾은 셈이다. 수출2팀으로 입사해 중남미지역을 맡았고, 이후 1팀에서는 미주와 중남미를 함께 맡으며 판매를 담당했다. 초기에는 시장 자체가 작아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접 판매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파트너 개발에 주력하자 시장점유율이 90%까지 뛰어 올랐다. 중남미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Passion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철강업계에도 찬바람을 몰고 왔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세아제강 수출팀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결은 무엇일까.

“해외영업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요. 그 바탕은 바로 신뢰입니다. 주어진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신뢰가 쌓이면 개인 네트워크가 되어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진 매력이 상대방에게 호감과 관심을 일으키고 판매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해외영업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요. 그 바탕은 바로 신뢰입니다. 주어진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신뢰가 쌓이면 개인 네트워크가 되어 성과로 이어집니다.”

세아제강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다

회사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세아업적상'. 2012년 세아업적상 영업 부문은 'SHELL 社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한 세아제강의 김익곤 팀장과 김승환 대리가 수상했다. 이는 오일 메이저 기업인 SHELL 社에 안정적 수주하는 기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세계 두번째 EFA(Enterprise Framework Agreement) 체결이라는 쾌거이기도 하다. 현재 김승환 대리가 소속된 수출3팀은 2013년 1월에 새롭게 개편된 팀으로, SAW 용접방식으로 생산된 대구경 강관에 주력해서 영업을 한다. “세아제강의 새로운 50년은 우리가 준비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안고, 6명의 젊은 직원들이 '철학을 가진' 김익곤 팀장의 지휘 아래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이제 2개월도 채 안된 신생 팀답게 '맨땅에 헤딩(?)'하는 무대보 정신과 '뭔가 해보자!'라는 패기, 끈끈한 동료애를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적으로는 개개인의 특화된 강점을 서로 공유하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외부적으로는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며 각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트너를 찾아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분투하는 중이다.

해외영업에서 앞만 보고 달린지 어느덧 8년.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입찰과 수주에 성공했지만 지금도 수주를 따 내는 순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짜릿함을 느낀다는 김승환 대리. 앞으로 수출3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SAW 제품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만드는 일, 결혼 등 어깨에 걸린 일들이 제법 묵직하다. 그동안 중남미지역에서 보여준 열정으로 평소 지론인 “자신감을 갖고 가슴 뜨겁게” 도전해 간다면 세아제강의 SAW 제품이 세계 탑 클래스에 진입하는 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이운형 회장의 조용한 기부 행보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운형 회장은 지난해 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쾌척하며 고액 기부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하게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 지도층의 고액 기부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회원들의 모임이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조용한 기부를 이어가는 이운형 회장

글 / 편집실

Humble Contribution

이운형 회장의 조용한 기부와 후원 행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13년째 국립오페라단을 후원해온 이운형 회장은 한국 오페라를 위시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세아를 오페라를 사랑하는 기업으로 이끌었다. 2009년 몽블랑 후원자상을 수상하며 밝혔던 바와 같이 거듭된 권유에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했지만, 이후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립오페라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이운형 회장의 집무실 책상에는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한 팸플릿과 기사가 스캔되어 있다. 국립오페라단의 작은 책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

에서 문화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운형 회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명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운형 회장의 노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2년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한 미국 미시간대학교 미술관에 한국관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시간대학교 미술관은 미시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미술관으로, 한국관 개설 소식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미시간대 한국학 연구소 관계자, 한인사회에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시간대 미술관에 한국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이운형 회장의 기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이운형 회장이 각각 50만 달러를 기부해 개관한 한국관은 ‘Woon-Hyung Lee and Korea Foundation Gallery of Korean Art’로 명명되었다. 증축한 미술관 건물 3층에 37평 규모로 문을 연 한국관은 중국, 일본 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미국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운형 회장은 미시간대 NAM 한국학 연구소에 ‘한국문화양성기금’과 ‘국제한



국학기금’으로 총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20만 달러에 이어 2012년 30만 달러를 지원한 이 기금은 NAM 한국학 연구소가 한국의 문화, 교육, 국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운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세아해암학술 장학재단도 2011년부터 매년 1만 달러를 NAM 연구소의 한국 문화 및 교사 양성 프



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5년간 한국학 학술 연구비로 매해 2만 달러를 후원했다. 2014년 이후에는 조성된 기금으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시간대 NAM 한국학 연구소는 해외 한국학 연구 육성사업(OLUKS)의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한국중앙연구원의 지원 아래 학술 심포지엄, 출판,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한국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조직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미술을 비롯한 오페라와 클래식, 발레, 문학 등 전통적인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과 고흐를 낳은 네덜란드, 베토벤과 바흐를 배출한 독일이 그러하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비해, 고급문화로 분류되는 순수 문화예술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운형 회장의 애정과 관심은 한국사회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세아제강이 올해도 변함없이 ‘희망풍차 오케스트라’ 후원을 이어간다. 세아제강은 2011년 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1억 원이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등의 악기 구입과 창단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쓰이면서 희망풍차 오케스트라 창단에 기여한 바 있다. 새해를 열며 희망풍차 오케스트라가 그동안 갖고 닦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과 기대를 안고 공연장을 찾았다.

한국의 ‘엘 시스템아(EI Sistema)’를 꿈꾸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의
작은 음악회

글 / 편집실

We have a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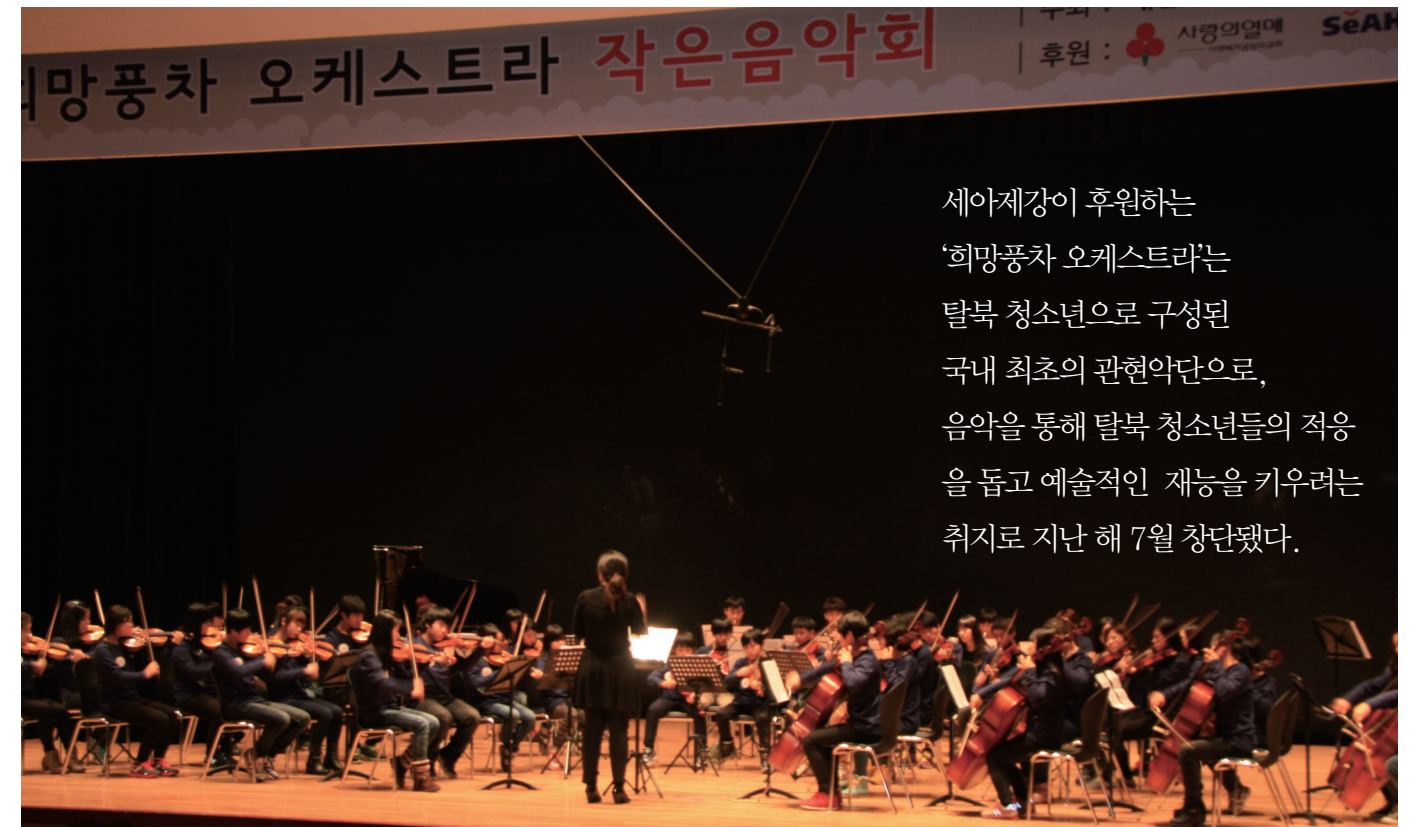


세아제강이 후원하는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관현악단으로, 세아제강의 기부금 1억 원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탈북 청소년들의 고단한 심신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남쪽’에서 무사 정착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우며 심리를 치료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키우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창단됐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단장의 지도 아래 76명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비롯한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와 장도초등학교(인천) 학생 중 희망자를 심사

하여 선발했다. 북한에서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합류를 통해 평소 연주하고 싶었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표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희망풍차 오케스트라가 2013년 1월 31일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단원들은 매주 2시간의 연습과 3박 4일의 음악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합주능력을 갈고 닦았다. 대부분 악기를 다룬 경험이 전무해 서투른 실력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담긴 연주’는 장내에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한 단원이 오케스트라에 맞춰 부른 ‘고향의 봄’은 청중들의 눈시울을 촉촉하게 했다.



세아제강이 후원하는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관현악단으로, 음악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고 예술적인 재능을 키우려는 취지로 지난 해 7월 창단됐다.

금난새 단장은 “음악은 가슴을 터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응어리를 어루만져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에서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엘 시스템아(EI Sistema)’ 프로그램을 참고했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원하는 음악 교육 재단으로,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음악을 위한 사회 행동’을 모토로 1975년 설립했다. 엘 시스템아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재활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베네수엘라 빈민 청소년을 구해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LA 필하모닉

의 젊은 음악감독 구스타보 두다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에딕손 루이스를 비롯해 호엔바스케스, L. 미겔 로하스, 에드워드 풀가르, 나탈리아 루이스 바사 등 쟁쟁한 음악가들이 엘 시스템아 출신이다. 엘 시스템아의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은 2007년 두다멜의 지휘로 카네기 홀에서 데뷔하여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 역시 탈북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꿈과 희망을 선사할 한국의 ‘엘 시스템아’를 꿈꾸며 결성됐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이번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훌륭한 뮤지션으로 육성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음악 공동체로 성장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금난새 단장

이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인천시립교향악단,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KUCO)가 음악 멘토로 합류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희망풍차 오케스트라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이탈주민,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 국내 4대 취약계층을 원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기초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세아제강은 2011년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여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의 출범에 함께한 것을 계기로 2013년에도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응원할 예정이다.

과거 기업의 경영목표가 매출 증대와 이윤 추구에 그쳤다면 현재 전 세계 기업의 경영화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이하 CSR)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만을 중요시한데 비해 현대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기대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윤리나 투명성과 같은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SeAH STEEL VINA,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다

글 / SeAH STEEL VINA 박상용 부장

SPECIAL CODE:
SSV (SeAH STEEL VINA)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베트남 DongNai의 BienHoa 2공단에 자리잡은 SeAH STEEL VINA(이하 SSV). SSV는 1995년 설립되어 1998년부터 본격적인 강관공장 가동을 시작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2011년부터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 기업 중 최고의 생산과 판매를 올리며 선두 강관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SSV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 중 하나로 베트남 현지 직원의 자녀를 위한 장학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SSV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학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SSV의 장학 사업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현지 현장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크게 저하시키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고질적 문제, 기능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SSV는 강관시장에서 선두기업의 자리를 지

키며 기업 인지도가 높아졌던 2011년부터, 세아의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데 영향을 받았다. SSV는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모색하던 중, GDP가 1,000달러 내외인 베트남에 가장 적합한 것은 ‘미래의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장학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을 내렸다.

SSV가 자리한 DongNai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이다. 주변에 40여 개의 고등학교와 5 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지만, 경제적 여건 상 자녀를 진학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SSV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착안해 성적과 품행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상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까지 꾸준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4분기 DongNai 교육청과 수차례 교류 끝에 2013년 1월, 지역 최고의 명문 대학인 LocHong 대학교와 Nguyen Trai 및 Thong Nhat의 2개 고등학교 학생 총 41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청을 통한 장학증서 전달의 차원을 넘어, SSV는 지역 내 학교를 모두 찾아가 세아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과 설명회를 실시하여 장학금 전달에 대한 취지를 알렸다. 수여식에는 선발된 학생 뿐 아니라 전교생과 학부모가 모두 자리하여 지역 축제의 장을 방불케 하며 세아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소식은 SSV가 소재한 공단을 관리하는 SONADEZI 및 DIZA까지 전파되어, 지역 내 우수 CSR 업체로 인정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기업이 정당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류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 일 것이다. SSV는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는 기업으로 거듭해 나갈 계획이다.

TAKING CARE OF JUNIORS

유연하게 후배 대하기



커뮤니케이션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이다. 후배는 상사를 잘 섬기고 상사는 후배를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형별 사례를 통해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똑 부러지게 상사 섬기기

WORKING WITH SENIORS

Q1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후배, 정이 안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애사심입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옮겨야죠.” 최 사원에게서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회사에서는 적당히 근무하다가 경력을 쌓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속셈이 보인다. 최 사원 같이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후배에게는 도저히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인력 유출은 조직 분위기를 저하하고 재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보다 먼저 조직 전체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후배에게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후원자 역할을 하는 ‘멘토’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후배의 고민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인간적으로 유대를 맺어가면서 회사의 경영철학이나 가치,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조금씩 키울 수 있다. 또한 최 사원과 같은 후배에게는 “지금부터 리더십을 준비하라”는 따끔한 선배의 조언이 필요하다. 대리 이후의 파트장, 팀장, 임원은 모두 리더의 길이다. 리더의 자리는 실무지식과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최 사원 같은 사람을 리더로 원하는 조직은 없다. 이런 조언을 해 주는 선배가 있다면 나도 계속 조직에 남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지 모른다.

Q2 자기표현에 너무 솔직한 후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신입으로 입사한 김 사원은 당돌해도 너무 당돌하다. 화려한 옷차림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직속 선배를 건너 뛰어 임원에게 가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는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다. 업무 지시를 하면 왜 내가 해야 하나며 따지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신입사원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자. 자기주장이 강한 김 사원에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청의 습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기 표현과 경청의 균형을 맞추어 줄 것”을 권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신입사원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점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니 주의하자’라고 세심하고 따끔하게 알려주는 선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조직문화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Q3 무능력한 상사 밑에서 일할 맛이 안나요.

김 과장의 하루는 지각과 함께 시작된다. 느지막하게 나타나 컴퓨터를 켜자마자 연예 기사부터 클릭한다. 오전까지 처리해야 할 일에는 관심도 없다. 모두 박 대리 몫이다. 업무시간에 딴 짓을 하고, 책임은 후배에게 전가하고, 공은 자기가 가지려 하는 김 과장. 박 대리는 김 과장만 보면 화병이 나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상황의 장점 찾기’다. 박 대리에게 현 상황은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비싼 사회 교육에 참가하는 것만이 배움은 아니다. 최고의 배움은 그 일을 직접 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무능한 김 과장 덕분에 박 대리가 상사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김 과장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조직의 위계 체계를 세우는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그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

다. 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온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

Q4 상사와 성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걸 일이라고 한거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월급 식충이야?” 오늘도 이 팀장은 정 과장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변덕은 얼마나 죽 끓듯 하는지……. 일 잘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다. 오늘도 정 과장은 생각한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상사를 만난걸까?’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듯이 이 팀장에게도 단점은 있다. 그의 단점은 업무능력이 훌륭하나 성격은 과격하다는 것. 이 팀장은 까칠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일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고 그 덕분에 지금의 팀장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만 잘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상사가 원하는 업무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 후 상사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 ‘팀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자주 피드백을 구하고 무엇이든 상사와 상의하는 태도를 보여주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팀장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먹으려 갑시다.”라며 팀 전체의 분위기도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대가 자기 자신을 바꾸기 어렵듯이, 상사의 스타일을 바꾸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유연하게 후배를 대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똑 부러지게 상사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지름길 아닐까?

그룹뉴스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 원 기탁

세아그룹이 2012년 12월 27일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5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총 7개 계열사가 참여한 이번 성금 기탁에는 세아베스틸 2억 원, 세아제강 1억5천만 원, 세아홀딩스 5천만 원, 세아특수강과 한국번디, 세아에샵이 각각 3천만 원, 해덕기업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세아제강이 기부한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돼 '희망풍차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세아그룹 각 사는 전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합 사옥 입주 완료

세아그룹 각 사의 서울지역 사무소들이 2012년 12월 말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아타워'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통합 사옥은 서울에서 차세대 유망지로 주목받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세아그룹은 이번 이전을 교두보로 삼고 향후 강관 및 특수강 등 철강업계를 아우르는 대표 기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챌린지 리더 5기 일본 기업 탐방



챌린지 리더 5기의 6차 워크숍이 일본 현지에서 진행됐다. 1월 21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의 나고야, 교토, 오사카에 소재한 혼다, 미츠비시, JFE STEEL, 교세라 등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을 방문했다. 이번 워크숍은 일본 선진 기업들이 가진 경

영 노하우와 철학 등을 벤치마킹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챌린지 리더 과정을 주관하는 세아홀딩스는 향후 협동심, 팀워크,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챌린지 리더 사후교육 실시



1~4기 전체 챌린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교육이 1월 14일부터 2박3일 동안 경기도 우리인재원에서 실시됐다. 사후교육은 핵심 인재들에게 동기부여, 지식·역량 강화, 계열사 간 교류를 통한 업무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서 '핵심 인재의 역량개발', '그룹 경영실적 및 계획', '철강산업과 전략', '핵심 인재의 사람관리', 그리고 '핵심 인재의 실행력' 등 5개 과정, 총 18시간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세아제강

해외 계열사 대표자 회의 개최



세아제강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SSV(세아스틸비나)에서 제3차 해외 계열사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이휘령 사장을 비롯해 해외 법인장들이 참석하여 2012년 경영실적에 대한 리뷰와 2013년 경영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계열사들이 안고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휘령 사장은 까다로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해외 법인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 설비 가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포항공장 '국가 자격 기능사' 시험 참여



포항공장 직원들이 12월에 열린 국가 자격 기능사 시험에 도전했다. 바쁜 생산 일정으로 교육과 개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도전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최종 합격 발표 결과, 설비보전기능사, RT기능사, UT 기능사 부문에서 총 39명의 국가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됐다. 포항공장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장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창원공장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추진



12월 30일 창원공장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 전 몰아친 폭설에도 사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독거노인과 조손 가정 등 3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2012년 11월에 있었던 '창원공장 ♥ 나눔 바자회'에서 모금했던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군산공장 '행복한 급식 봉사활동' 개최



군산공장 봉사모임인 '천사를 닮은 사람들'이 1월 16일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16명의 봉사단원들은 군산시에서 마련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그 동안 군산공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산공장은 2013년에도 매월 무료급식과 독거노인세대 방문 등 봉사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아베스틸

해의 산업현장 시찰



세아베스틸이 2012년 하반기 해외 산업 시찰을 실시했다. 11월 20일부터 총 12명의 기능직 우수 직원들을 중심으로 3박4일 동안 진행된 시찰은 중국 싱창특수강, 보산철강 등을 돌아본 후 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시찰에 참여한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문화와 경영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2012년 정년퇴임식 개최

세아베스틸이 12월 21일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총 14명의 정년 퇴직자들은 18년에서 34년



동안 장기 근속하며 세아베스틸과 동거 동락했다. 행사에 참가한 신희수 전 지원본부장과 설승욱 노조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애쓴 퇴직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퇴임식에는 퇴직자 가족과 임직원이 자리하여 꽃다발 증정과 기념 촬영, 박수갈채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목표필달, 품질혁신" 결의다짐 등반 추진



세아베스틸 특수강 품질담당 직원들이 1월 5일 "2013년 목표필달, 품질혁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악산 등반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계사년 새해를 시작하며 '소통과 배려'의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 새롭게 정신을 무장하여 고객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행을 계기로 끈끈하게 뭉친 26명의 품질담당 직원들은 계속해서 서로 의지하고 도전하여 경쟁력 향상과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사원 자녀 어학캠프 실시



세아베스틸이 1월 7일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약 2주 동안의 어학캠프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원 자녀 34명이 참여한 어학캠프는 레벨테스트로 반을 편성하여 진행됐다. 원어민과 내국인 강사 총 7명을 초빙해 회화, 읽기, 특별 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사랑의 헌혈 실시



12월 7일 충주공장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헌혈은 충주공장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행사에 참여한 충주공장의 사우들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충주공장, '사랑의 쌀 나누기' 추진



12월 20일 충주공장이 목행용탄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백미 100포를 기부했다. 충주공장이 기탁한 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국번디
광주공장,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개최



12월 15일 광주공장에서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개최됐다.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약 300포기의 김장김치를 독거노인 50세대에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온 광주공장은 2007년부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매해 추진해왔다.

세아 ESAB
ESY 연수단 방문



중국 옌타이 소재의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이하 ESY) 연수단이 12월 10일 세아에ساب을 방문했다. ESY 연수단은 생산, 품질, 전산, 인사 등 각 부문별 관리직에 종사하는 4명의 중국 현지 직원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1주일 동안 생산현장 견학과 업무 연수 등 일정을 소화하며 세아에ساب의 선진적인 기업문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접했다.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캠페인 참가
세아에ساب이 12월 26일 KBS창원총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모금행사에 참여했다. 전 임직원들이



적극 나선 이번 행사는 방송촬영도 뒤따랐다. 이날 세아에ساب은 9월부터 추진하는 동전 모금과 바자회 등을 통해 조성한 130만 원을 기부했다. 유덕상 대표는 “전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기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아에ساب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PRO-EX 2015 경영혁신 발대식’ 개최



세아에ساب이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PRO-EX 2015 경영혁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발대식에는 세아에ساب이 2015년까지 향후 3년간 FCW 전문 기업에서 종합 융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체질 개선, 매출액 3000억 원 및 영업이익률 15% 달성,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에 중점을 뒀다. 유덕상 대표의 강연을 시작으로 ‘PRO-EX 2015’와 ‘Lean 활동’에 대한 소개, 전 임직원의 단결심을 기르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3년간 성공적인 혁신활동과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세아로지스
신홍수 대표이사 취임
세아로지스가 1월 2일 대표이사 취임식 겸 시무



식을 개최했다. 모든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신홍수 대표는 신년사와 취임사를 통해서 2012년 세아로지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2013년 경영방침으로 ‘내실경영 강화’를 선포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처하며 경영목표 달성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 새단장



세아로지스는 2월 1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구조로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CI 디자인을 적용하여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며 방문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업정보’ 카테고리 중 ‘사회적 책임’과 메인 카테고리인 ‘홍보센터’, ‘채용센터’ 등의 메뉴를 추가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었다.

세아홀딩스

결혼
장진수 미래전략파트

세아제강

입사
이상일 포항 업무지원팀
권영규 포항 설비보전팀
강정호 군산 생산2팀
손지혜 실수요2팀
박미혜 수출2팀
이원석 경영기획팀
나보미 신수요개발팀
이충원 인사운영팀
이상현 구매팀
이성훈 대리점팀
권중재 실수요1팀
정석원 실수요2팀
이재원 STS내수팀
송성준 수출3팀
이광표 수출3팀
이병준 포항 업무지원팀
정희태 창원 품질경영팀
이종민 창원 품질경영팀
정다훈 군산 업무지원팀
이민우 강관2 생산팀
김형규 부산실수요팀
정창일 부산STS영업팀
장혜진 기술연구소 장혜진

결혼
이승천 창원 생산팀
김기홍 기술연구소
김대웅 기술연구소
여태형 포항 물류팀
이진열 포항 생산1팀

출산
문용인 군산 생산1팀
심기원 군산 생산2팀
이명래 군산 생산2팀
한지훈 군산 생산1팀

조완래 구매팀
한정우 특관팀
박경식 아연도강판영업팀

조의
윤종삼 창원 업무출하반(모친)
이진주 창원 품질경영팀(모친)
노영수 포항 생산1팀(모친)
기세철 포항 생산1팀(장인)
이정규 포항 생산2팀(장인)
이창우 포항 설비보전팀(장모)

세아베스틸

입사
이강토 구매2팀
오해린 연주팀
임윤수 창녕 정정파트
장영배 보종3파트
손동훈 창녕 업무지원팀
김광수 구매1팀
김보람 구매2팀
신영재 수출팀
김재영 압연설비팀
윤나건 기획팀
함형석 공정1파트
최리선 인재개발팀

결혼
최우성 시험연구그룹
최대로 특)품질보증팀
박준석 특)품질보증팀
황강석 제강팀
전희선 인재개발팀
박종원 단)생산관리팀
박성근 제강설비팀
차경섭 부산영업팀
서동욱 설비지원팀
박동근 제강팀

조의
김창규 연주팀(모친)
국중문 특)생산관리팀(부친)
국중만 에너지관리팀(부친)
국중남 소형압연팀(부친)

김선규 노동조합(부친)
이광로 단)기술담당(모친)
김형우 인재운영팀(부친)
조기찬 지원본부(부친)

세아특수강

입사
이현수 포항 설비팀
이장희 선재판매팀
정재웅 기획인사파트
배건호 포항 생산팀
박기태 포항 생산팀
이신일 충주2 품질보증팀
최성규 충주 설비팀

결혼
최진영 포항 생산팀

출산
최수남 충주2 생산팀

조의
손은준 포항 생산팀(조모)
신민철 포항 생산팀(부친)
이상도 포항 생산팀(누나)

한국번디

입사
윤여웅 구매팀
최만규 선형개발파트

출산
신석호 연구3팀
김재수 외주관리팀
최극겸 해외사업지원팀
강경국 광주 품질경영팀
백광선 광주 생산팀

조의
한상철 평택 생산팀(형님)
이정철 평택 생산팀(장인)
고주선 광주 생산팀(장인)
설채호 광주 생산팀(부친)
장제태 광주 생산팀(조모)

세아 ESAB

입사
백성현 제품개발팀
홍성표 재경팀
윤도경 재경팀

출산
김영민 종합운영팀

세아 M&S

결혼
최준혁 관리팀

출산
윤진영 기술연구소

세아 E&T

입사
이상훈 터보연구개발팀

결혼
임신목 태양전지개발팀
이경신 터보생산팀

출산
박인욱 화공생산1팀
김정훈 화공생산1팀
김민재 플랜트생산팀

조의
주대호 플랜트생산팀(부친)

해덕스틸

입사
정유진 광양공장

결혼
김대하 부산영업팀

출산
신현국 당진공장



Quiz

Find the Real SeAH Logo

세아 로고를 찾아라

독자 여러분!

새롭게 바뀐 <세아가족>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정확한 세아 로고를 찾아주세요.

어떤 로고가 진짜 세아 로고인지 표시해서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남택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김지영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전기영	군산시 소룡동	김상진	세아홀딩스 정도경영팀	형정강
왕찬주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권영대	남양주시 와부읍	박경미
문경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김종섭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Epilogue

Hello New SeAH Family

<세아가족>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아가족>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주, 직접 참여를 원하

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chris.ahn@seah.co.kr

02-6970-0093



Message

<세아가족> 독자의견

박경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세아가 펼치는 나눔의 미학~ 좋았습니다.

세아와 함께하는 생활 속 나눔 캠페인 아름다운 세상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

상이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나눔 아닐까요?

나눔. 참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봤습니다.

권영대 남양주시 와부읍 연말이라 그런지 이번 사보에는 각 계열사들의 이

웃사랑(기부) 실천 소식이 많이 실려 있네요. 기사 하나, 사진 하나 읽고 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오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아인들이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김지영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사보를 통해서 세아그룹의 미래를 볼 수 있

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기회 삼아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세

아를 기대합니다.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기	세아 E&T 화공사업지원팀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평택)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진승래	세아 ESAB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사업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일본 열도 세아인을 감동시킨

바삭바삭 달콤한 ‘한과’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세아인에게 감동을

전사하는 남자, 세아제강 STS수출팀 유재천 사원의

시크릿 노트를 공개한다.

저는 세아제강에서 일본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작년에 추석 선물을 준비하러 시장에 갔

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타국 생활에서 제일 그리운 것이 한국의 맛이잖아

요. 그래서 일본에서 근무하는 세아가족을 위해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한과’를 보내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었죠. 세아재팬에 선물을 보내고 며칠 후 전화를 받았어요. 반가운 선물 잘

받았다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지금도 그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답니다.

세아제강 STS수출팀 유재천 사원



유재천 사원의 시크릿 노트 대 공개

3,000원의 행복~ 격주 금요일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후임 점심 사주는 날. 특히 맥도날드 런

치세트는 여러모로 괜찮은 아이템! 단돈 3,000원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감동을

선물해보세요~

웃음폭탄 투하! 모두가 지쳐있는 야근시간, 성대모사 등으로 동료들에게 활력을 선물해요. 중

요한 오더는 밤에 수주하기 때문에 한바탕 웃고 나면 늦게까지도 파이팅 할 수 있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더 공략! 공장에서 생산에 굶주려 있을 때, 긴급 오더나 대형 프로젝트 수

주 오더 보내기! 바로 엄청난 반응이 옵니다. 역시 제일 큰 선물은 오더인 것 같네요~

업무 중간 중간, 언제 어디서나 세아인을 감동시키는 유재천 사원처럼

우리 세아가족도 동료들에게 작은 감동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아가족〉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아그룹의 사보입니다.

※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세아가족

우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

□□□-□□□

RELATIONSHIP

01+02

JAN + FEB 2013

받는 사람

SeAH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세아가족〉 편집실

1 2 1 - 8 4 1

— 퀴즈정답(진짜 세아 로고를 찾아주세요)



— 참여하고 싶은 킬럼 혹은 추천하고 싶은 사우

— 가장 재미있었던 킬럼

— 사보를 읽은 소감